

금호타이어 '노노갈등' 안된다

올들어 영업적자 1,600억 비상

사태 악화땐 지역 경제도 '흔들'

오늘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 촉각

광주 제조업의 핵심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금호타이어가 '노노갈등'으로 인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지난달 16일 사측과의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던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집행부 불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29, 30일 치를 예정이어서, 차치 '노노 갈등'이 지역경제 악화로 비화할 위기다.

28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9일 오전 5시부터 30일 오후까지 광주, 꼭성, 평택공장 노조원 3천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노동조합 내부의 '정리하고 철퇴,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위원회(정투위)'가 조합원 2천742명의 서명을 받아 노조 위원 탄핵을 위한 불신임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대의원들이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22일 임원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원 탄핵을 위한 투표는 조합원과 반수 찬성을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불신임안이 가결되게 돼 있어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의 내부 갈등 증폭과 함께 노사 관계는 물론, 최근 회복 단계에 접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임금협상에서 임금동결과 인력운영 재설정 등에 합의하면서 정리하고 철퇴를 이끌어 냈으므로써 700여명의 정리하고 에 따른 제2의 쟁용자 사태를 막아낸 것으로 높게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노동조합

의 기능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그로 인해 임금협상 합의안의 후속조치들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타이어업체 경쟁사들은 이번 3/4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3분기 57억원에 영업적자를 봤다. 올 누적 영업적자 1천614억원, 경상적자는 3천7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경제계의 한 인사는 "이번 사태로 노사관계가 다시 불안해지고, 임금협상 결과가 물거품이 되어 회사의 경영악화가 심해질 경우 다시 고용문제가 대두하지 않을지 걱정된다"면서 "노노갈등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회복되어 합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회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5호점째인 iCOOP생협의 '자연드림' 운암점이 28일 오전 문을 열자, 조합원과 일반소비자 등이 매장에서 친환경제품들을 구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남 '진양주'·강진 '청세주' 등
전남 10개 전통주 '명품' 등극

국세청 주류품질 인증

해남 '진양주'와 강진 '청세주' 등 전남지역 10개 전통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주류품질 인증을 받았다.

2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율체 처음으로 시행한 '주류 품질인증' 심사에서 약주 5개 품목과 과실주 5개 품목 등 전남지역 전통주 10개 브랜드가 통과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전통주는 약주의 경우 지리산 산수유, 해남 진양주, 강진 병영의 청세주, 담양 추성고을의 기대주와 대입술 등이다. 해남 진양주는 해남 계곡면에서 전승되는 궁중의 양

조술로 경주법주보다 강한 향기가 특징이다. 청세주는 설성동동주로 유명한 병영주조장이 만드는 알코올 함량 18%대의 전통 약주다.

과실주에선 학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의 레드마운틴 스페셜·2종·뽕 등 3개 브랜드와 함께 보해양조·장성공장의 보해 복분자 2종이 인증을 받았다.

국세청은 서면·현장·품질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외부 주류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맛·향·색깔 등을 테스트하는 관동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84개 브랜드에 주류품질인증을 부여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종플루, 경제 악영향 시작

3분기 교육서비스업 GDP 작년보다 0.1%P 감소

신종플루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28일 한국은행의 GDP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교육서비스업 GDP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 줄어 한반도 후인 1999년 1분기(-0.3%) 이후 10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교육서비스업은 금융위기로 경제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에도 견제했다.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작년 4분기에 1.7%를 나타냈고 올해 1분기에 1.5%, 2분기에 1.0% 등의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3분기에 이르러 감자기 고개를 숙였다.

반면, 전체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4분기 -3.4%, 올해 1분기 -4.2%, 2분기 -2.2% 등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다 3분기에 이르러 +0.6%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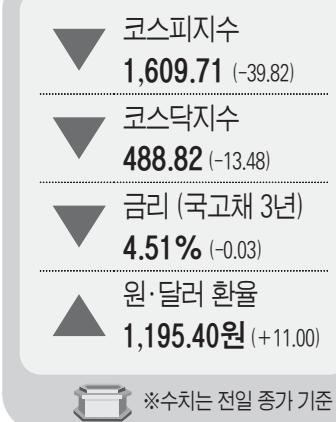
교육서비스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정부의 사교육 규제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신종플루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입시 외의 일반 사설학원 쪽에서 마이너스가 많았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GDP 전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음식·숙박업에서는 호텔·콘도·연수원 등 디중 수용시설이나 수학여행 속수 등의 통계에서 마이너스가 관찰됐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임희정 연구원은 "신종플루가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8~7.8%포인트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세청 품질인증 주류

주증	회사명	대표자	제품명	지역
약주	지리산산유영농조합법인	손순길	지리산산수유	구례
	해남진양주	최옥림	해남진양주	해남
	병영주조장	김경식	청세주	강진
과실주	추성고을	양대수	기대주	담양
	험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	조병준	레드마운틴 2종	험평
			레드마운틴 스페셜	
			레드마운틴뽕	
	보해양조(주)	임건우	보해복분자 2종	장성

한은 관계자는 "교育서비스 분야에서는 입시 외의 일반 사설학원 쪽에서 마이너스가 많았다고 밝혔다.

유기농 점포 '자연드림' 8년만에 15곳으로 확산

어제 운암점 오픈... 지역경제·환경 살리기 앞장

iCOOP생협의 친환경 유기식품 대표브랜드 '자연드림'이 28일 북구 운암점을 열었다. 지난 2001년 첫 매장을 낸 뒤 광주 5호점으로, 대형 마트와 SSM의 공세 속에서도 지역 내에서 꾸준히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전남에서도 10여 곳에 매장을 있다.

빛고을생협, 서구 생협 등이 출자한 주식회사 '자연드림'은 이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의 생산자를

전한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 층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1년 첫 매장을 낸 당시에는 수 백가지에 불과했던 제품은, 우리밀 베이커리, 친환경 유기농 죽산업, 고점무부양식품까지 포함하면서, 1천500가지로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일반제품보다 2~3배 높았던 가격도 생산 과정에서 최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 곳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통인증번호를 통해 생산자 이력, 재배 이력, 필자 이력, 유통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또 소비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소비자

가의 20~40% 정도 싼 조합원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빛고을생협, 서구 생협 등 광주지역 조합원은 3천여 명에 달한다.

자연드림 빛고을생협 지점 운암점 대표 김홍범(43)씨는 "직거래 방식에, 생산자들이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건강한 먹거리로 인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암점은 매장 오픈 기념으로 다음달 8일까지 12일간 최대 40%까지 할인한 생협조합원 특가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iCOOP는 전국 70개 지역생협이 조직한 활동사업조직으로, i는 이상.idea, 혁신(innovation), 순수(innocence)를 의미하며, COOP는 협동조합(cooperative)의 약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MC투자증권 광주지점 KIA 우승 사은행사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 광주지점이 개점 1년 1개월 만에 예탁자산 2천억원을 돌파했다. HMC투자증권 광주지점은 이에 따라 예탁자산 2천억원 돌파 및 기아 타이거즈의 12년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은행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HMC투자증권 광주지점은 지난해

9월 광주 상무지구에 문을 연뒤 주식은 물론 채권거래 영역에 중점을 둘 1년 1개월만에 예탁금 2천억원 돌파라는 성과를 올렸다. 대다수의 개별 증권사 지점은 개점 10년이 넘어도 예탁자산 2천억원을 넘기기 쉽지 않다.

HMC투자증권 광주지점은 한달 동안 계속되는 사은행사를 통해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H'에 500만원

이상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도자기 주걱세트 선물과 함께 1대 1재테크 상담 기회도 제공하고 5천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수제 고급 비누 세트를 선물로 줄 계획이다.

HMC투자증권 위승환 광주지점장은 "이번 행사는 CMA 등의 재테크 상품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사은품까지 질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기회"라며 "기아 우승을 기념해 타이거즈 선수들의 팬사인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현사례/풀물

소재지	면적/구조물	감정가	초지가	비고
대구2동 대450,간4900	64억6천	28억6천	5층 복층	
남구구동 대104,간906	36억8천	20억6천	4층 고급상장	
동성동 대85,간2005	179억8천	129억4천	미트 슈퍼빌딩	
성남동 대108,간1023	112억7천	82억6천	7층 복층	
순천동 대119,간501	14억	4억	복층	
화정동 대448,간2050	37억4천	13억4천	5층 복층	
남성동 대421,간126	13억4천	6억	4층 복층	
광진동 대349,간2861	17억	11억8천	3층 상가	
동성동 대1477,간4278	515억7천	148억3	12층 균형동	
충장동 대1068,간10151	99억8천	189억8천	구내·복회점	
운암동 대2171,간810	48억7천	17억4천	대형식당	
신동면 대553,간2065	198억8천	7억1천	6층 복층	
개월동 대298,간354	49억3천	39억7천	4층 원룸	
화정동 대161,간239	1억8천	1억3천	3층 디자인	
월곡동 대224,간265	2억	1억4천	2층 주부	